

현안과제연구

Issue Report

2016. 03. 31

CONTENTS

< 요약 >

1. 과제개요
2. 이론적 고찰 및 검토의 틀
3.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 검토
4. 사업추진방향 검토 및 제안

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방향 검토

박철희

충남발전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연구위원, jacob10@cni.re.kr

본 연구의 목적은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(1차)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추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음.

요 약

- 본 사업에 대한 현황/문제점 검토는 ①하드웨어 설계, ②소프트웨어 설계 ③제도 ④재정 요소부문 등에 대하여 실시.
- 검토결과, ①하드웨어 설계요소인 기존 근대건축물의 정비·보전, 공공공간(보도, 주차장, 쉼터 등)의 조성은 긍정적인.
 - 그러나, 일부 시공 상에 문제와 활용과 연계된 공사의 범위의 문제가 도출.
- ②소프트웨어 설계요소인 지역관리/지역활성화/고용창출 및 교육/전문가 자문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활성화를 위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추진이 요망됨.
- ③제도 요소, ④재정 요소가 뒷받침이 되지 않아 체계적 관리를 위해 문화/미관지구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.
- 결과를 바탕으로, 사업추진 방향에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함.
 - 첫째, 근대건축공간과 공공공간 조성 사업에 있어 공간(건물 실내공간 내부마감, 보도 시공면, 가로시설물 등)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행자/방문객 들을 위한 공공공간의 지속적인 확보 방안(건물 전면공간 활용)이 요구됨.
 - 둘째,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분야별(건축, 조경, 교통, 마케팅 등)로 전문가 자문프로그램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, 지역 활성화/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근대건축물 정비, 공공공간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.
 - 셋째, 근대공간과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대상지역을 문화지구(지역문화진흥법) 및 미관지구(도시관리 계획)로 지정하여 행정·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.

I. 과제 개요

1. 배경

- 강경은 근대시기인 1930년대에 금강 상류의 해상·내륙 연계 항구로서 국내 3대 시장 중 하나로 번성하였고, 현재는 젓갈생산과 유통·판매에 기반 한 경제기반을 바탕으로 내륙의 상업도시 기능을 담당
- 그러나 내륙중심의 물류환경 변화, 주변도시(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시 등)의 성장 등으로 도시 쇠퇴가 지속되고 있으며,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이 훼손되어가고 있음
- 이를, 극복하기 위해 논산시에서는 강경지역에 있는 역사 유산인 근대건축물을 보전하며 새로운 관광자원화를 위한 강경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
- 사업은 2012년에 계획수립 및 투융자심사분석, 13~14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·완료하였으며, 15년에는 설계를 바탕으로 역사문화공간 (근대건축물 정비 및 거리 조성) 조성 1단계 사업추진을 추진
-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(1차)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그 동안의 사업을 진단하고, 향후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볼 시점에 있음

2. 목적

-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(1차)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추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음

3. 범위

■ 공간적 범위

◦ 위치 : 논산시 강경읍내 옥녀봉로 주변 실시설계구간

[그림 1] 검토대상 위치 및 범위



■ 시간적 범위

◦ 계획기간 : 2016년 3월3일 ~ 3월30일

■ 내용적 범위

◦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임

① 사업화를 위한 요소 - 이론적 검토

- 사업화(관광자원화 및 활성화)를 위한 요소 검토와 이를 통한 사업진단의 틀을 마련

②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 도출

- 사업추진 현황은 논산시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함

- 현장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

③ 추진방향 검토 및 제시

II. 이론적 고찰 및 검토의 틀

1. 이론적 고찰

1) 역사 건축물의 보전·운영·제도 측면

(1) 보전 측면

- 역사 건축물들에 대한 지역적 보존·활용 수법을 보면 공간적 차원에서는 ①도시형, ②지구형, ③가로형, ④단위건물형이 있음
- 단위 건물형의 경우에는 역사 건축물의 수준(건축물 디자인, 규모, 의미 등)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많이 적용됨

(2) 운영 측면

- 활용과 관련된 운영 측면에서 관리주체에 따라 분류해 보면 ①정부/지방정부, ②제3섹터형 기업, ③민간기업, ④NPO/NGO, ⑤주민협약체 등으로 구분

(3) 제도 측면

- 선·면적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제도는 ①문화지구, ②경관·미관·보존지구, ③경관지구, ④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있음
-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지구 지정은 2014.1.28부터 삭제되고, 지역문화진흥법(제2조, 제18조)에 의해 추진되도록 변경됨

가.문화지구¹⁾

-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

①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·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

1)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,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함(지역문화진흥법 제2조)

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

②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·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

③그 밖에 유형·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

◦ 문화지구 지정은 자치단체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·도지사의 승인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)을 받아 지정할 수 있음

◦ 관리계획을 통해 자치단체장은 문화지구의 유지·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

①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에 따른 사행행위영업

②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③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

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

나.경관지구²⁾, 미관지구³⁾, 보존지구⁴⁾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_도시관리계획

◦ 경관지구 중 시가지경관지구⁵⁾ :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
2) 경관을 보호·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①자연경관지구, ②수변경관지구, ③시가지경관지구 등이 있음

3)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①중심지미관지구, ②역사문화미관지구, ③일반미관지구 등이 있음

4) 문화재,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·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

5)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, 주로 중심·일반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함

- 미관지구 중 **역사문화미관지구** :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- 보존지구 중 **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** : 문화재·전통사찰 등 역사·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

다.경관지구와 미관지구 지정 및 관리 - 경관법(제14조)

- 경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경관계획에 의거하여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
-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지정절차 등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에 따름

라.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- 문화재보호법(제13조)

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·예술적·학문적·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함
- 강경의 경우 보존지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려면, 기존 정비건물을 문화재로 지정한 후에 보존지역을 설정해야 함
- 현재의 건물이 문화재 지정 가치에 대한 판단 여부, 보존지역으로 지정 시에 행위제한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
2) 활용 측면⁶⁾

(1) 용도유형

가. 커뮤니티 시설

- 커뮤니티 시설은 시민을 중심으로 한 활동에 사용되지만, 시민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음
- 커뮤니티 시설의 예로서는 ‘마을만들기의 거점시설’, ‘시민이 주체가 되는 활동의 거점시설’, ‘다목적 시설’ 등임

6) 충남발전연구원 옮김 2012, 역사적 유산의 보존·활용과 마을만들기, 한울출판사, pp151~156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

① 마을만들기의 거점시설

- 마을만들기를 위한 시민집회나 연구회의 개최, 마을만들기 관련 상담이나 정보의 제공 등 마을만들기의 보급계발을 중심으로 한 활동에 사용됨
- 지역 안에서 역사적인 건물을 이렇게 활용하는 사례는 마을만들기를 지역에 밀착시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

② 시민이 주체가 되는 활동의 거점시설

- 주민센터 또는 마을회관에서와 유사한 동아리활동, 무대공연, 거리에 관한 정보 제공의 장(거리안내소), 시민갤러리 등 시민이 주체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

③ 다목적 시설

- 축제나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이벤트 등 비교적 규모가 큰 활동에 사용
- 활용되는 건물도 하나가 아니라 창고군 등 복수의 건물이 배치된 필지가 많이 이용됨

나. 체험형 시설

- 숙박하거나 실제로 농사일을 하면서 민가의 생활을 체험하는 ‘생활체험’, 띠로 지붕을 잇는 지역의 독특한 관습을 체험하는 ‘초가잇기 체험’ 등이 있음
- 이러한 체험은 단순히 건물을 아는 데 끝나지 않고 지역의 생활문화나 전통을 이해하는 귀중한 기회가 됨

다. 문화·교양시설

- 지역의 역사, 문화, 민속, 산업 등에 관한 자료나 물품을 전시하는 향토자료관, 지역과 관련이 있는 회화를 비롯한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 등을 들 수 있음
- 이 외에도 박물관, 야외박물관 등의 공개 건물로도 활용
- 건축유산을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존재로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함

라. 공공·교육시설

- 시청, 읍사무소 등의 행정기관, 학교교육을 위한 시설로 활용

마. 관광·상업시설

- 여관, 민박, 점포, 찻집, 레스토랑 등 관광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상업시설의 기반으로 활용
- 역사적 유산이 관광이나 상업의 중요 요소로 활용되는 것은 개인의 이익뿐 아니라 지역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함

바. 사무소시설

- 은행이나 기업 등의 업무용으로 활용

사. 기 타

- (가)에서 (바) 외의 경우로, 사찰이나 교회 등 종교시설, 주택, 병원, 철도역시설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들 수 있음

(2) 활용의 형태

가. 계속형 활용

- 건설 당시부터 현재까지 건물의 용도가 변하지 않은 유형
- 사찰건축을 비롯하여 숙박시설, 업무용시설, 교육시설, 주택 등에서 많이 나타남

나. 부활형 활용

- 건립 때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용도로 변경되었거나 사용하지 않게 된 건물을 본래의 용도로 되돌린 유형

다. 전용형 활용

- 건립 때와는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유형으로, 건물에 따라서는 수차례 용도가 변경된 것을 말함⁷⁾
- 전용을 위해서는 건축물 일부 또는 내부를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원래 건물의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계획이 필요

7) 일본의 경우 최근에는 전용형 활용이 늘고 있음

3) 시사점 및 종합

- 선행연구와 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강경의 사업 목적인 관광자원화 및 활성화된 모습을 이루기 위한 계획요소는 문화지구와 관련된 계획요소에서 찾아볼 수 있음
- 점적인 측면에서 선적·면적인 문화의 거리 및 지구로 형성이 되어야 하며 그 계획요소로서 ①설계(하드웨어, 소프트웨어), ②제도 및 ③재정 요소가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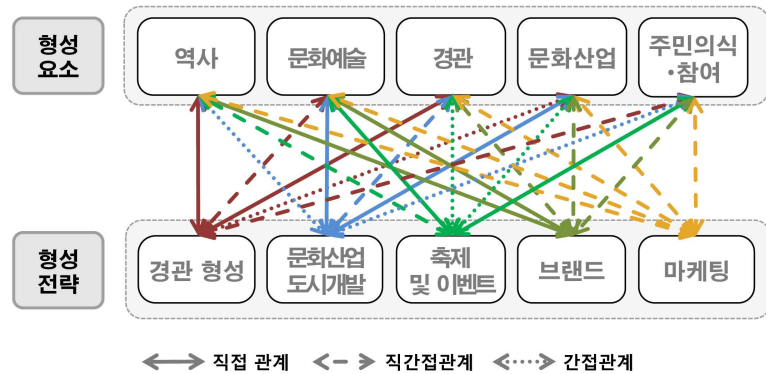
[표 1] 문화지구 형성 및 관리에 대한 요소



자료: 박혁, 2010, 문화지구의 유형별 계획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_인 천개항장 문화지구를 중심으로, p65.

- 또한, 보다 궁극적으로 지역의 활성화 요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마케팅을 통하여 브랜드화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연계관계는 다음과 같음

[표 2] 문화도시 브랜드 이미지 형성요소와 전략과의 관계



자료: 박철휘, 2011,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모형과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, 박사학위 논문, p71.

- 논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공간의 브랜드화와 마케팅을 통해 이루어짐
- 이 부분은 공간조성 또는 활용의 주체자가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서,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
- 강경 사업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①설계(하드웨어, 소프트웨어), ②제도, ③재정 요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, 이후 사업주체자에 결정 됨에 따라 축제/이벤트, 브랜드, 마케팅을 추진하여야 함

2. 검토의 틀

- 본 검토에서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에 ①하드웨어 설계, ②소프트웨어 설계요소, ③제도 요소, ④재정 요소에 대한 추진 측면에서 1차 사업에 대한 검토를 추진함

[표 3] 검토의 틀과 검토 기본 방향

문화지구 형성요소		세부요소	적용단계			검토 기본 방향
			초기	중기	장기	
설계 요소	하드 웨어	공공시설/공간 확보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초기/중기 단계에서 형성되어 중기 이후 부터는 관리프로그램에 의해 운영 계획수립과 함께 어떤 수준으로 조성(공간의 질)되는냐가 매우 중요 사업주체에 따라 변화될 수 있어 중 장기 적으로 검토 필요 초기에 접근되는 것이 좋지만, 여건 이 허락되는 범위에 따라 접근
		보행환경정비				
		역사자원의 보존				
		역사자원의 활용				
		접근성 개선				
	소프트 웨어	지역관리 프로그램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장기적/지속가능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 중장기적/지속가능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
		지역활성화 프로그램				
		고용창출 및 교육프로그램				
		전문가 자문 프로그램				
제도		용도 및 업종제한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
		권장시설 인센티브				
		규제완화				
		파트너쉽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초기에 접근되는 것이 가장 좋음 지속가능 관리를 위해 필요
		주민협의기구 및 주민협약				
금융·재정		조세감면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
		융자지원				
		보조금 지원				
		입주지원				
		신원보증 지원				
		지역행사 지원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역사자원의 활용과 연계하여 추진

Ⅲ.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 검토

1.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- 설계요소_하드웨어

1) 공공시설/공간 확보

-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, 공원, 광장, 쉼터, 주차장 등임
- 과거 옥녀봉로에는 마땅한 공공공간이 없었지만, 이번 사업을 통해 광장, 쉼터, 주차장이 확보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
- 공간 활성화에 따라 추후 필요시 공공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노력 필요

»시가 매입한 근대건축물 전면공간은 공공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 디자인적인 조성 및 이용이 요구됨

[그림 2] 외부공공시설 및 공간



2) 보행환경 정비

- 아스팔트인 차량도로에서, 보도블럭으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보행자가 이용하는데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

- 보도의 조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, 타도시/지역의 사례에서와 같은 수준의 심미적으로 편안하며, 안락한 보도면을 형성하고 있지 못함
 - 보도노면의 낮은 평활도(불규칙성), 거친 블록시공, 건물과 접한 공간의 처리 미흡, 근대공간과 조화되지 못하는 시설물 등은 공간의 질을 떨어뜨리고,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
- »현재 보행가로 공간 내에 방문객이 쉴 수 있는 공간/시설 확보가 요망됨

[그림 3] 보행환경 정비 현황 및 문제점

보도의 조성	매력도를 거친 시공과 부조화된 시설물
	

3) 역사자원의 보존 - 근대건축물 정비/보존

- 기존 근대 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, 보존에 전환점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큼
- 그러나, 각각의 건축물에 대해 어느 공간까지를 근대식으로 복원하고, 현대화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시공됨
-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근대 공간의 체험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
- 설비(전기), 인테리어 디테일(천정면 전등, 손잡이, 기둥처리 등) 등이 매우 거칠어 근대공간의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있음

[그림 4]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정비

정비된 근대 건축물 외부입면	정비된 근대 건축물 내부공간
	
내부기둥에 대한 일률적인 마감	근대건축 내부공간과 맞지 않는 재료 사용
	
건물 입면에 부조화된 시설물	건물 조화되지 못한 시설물
	

4) 역사자원의 활용 - 근대건축물 활용

- 역사자원을 활용하는 주체는 근대공간의 활용에 대한 공간적, 내용적, 시간적 측면을 다루기 때문에 거리 활성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
- 현재 논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00방송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, 공간적, 시간적, 내용적 활용범위는 명확히 결정되어 있지 않음
- 이외의 공간은 역사박물관에 위탁하여 테마박물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는 상태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/관리될 지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음
- 기본계획 상에는 다음과 같은 활용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나, 활용 주체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됨
- 활용의 주체는 ①공공, ②제3섹터형(TMO, 사회적 기업 등), ③NPO(NGO), ④민간기업, ⑤주민협의체 등이 있음

5) 접근성 개선

- ①사업 대상지 내의 공간 간의 접근, ②사업대상지와 강경을 내의 자원과의 접근(연계), ③외부에서 대상지로의 접근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
- ①사업 대상지 내의 공간 간의 접근은 아스팔트에서 보도블럭으로 교체하여 보행으로 내부 공간 간의 접근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
- ②사업대상지와 강경을 내의 자원과의 접근(연계)은 근대문화코스에 소개된 것에 기초하여 트레일 코스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
- ③외부에서 대상지로의 접근성은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강경역(기차), 강경시외버스터미널(버스), 자가용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 필요

2.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- 설계요소_소프트웨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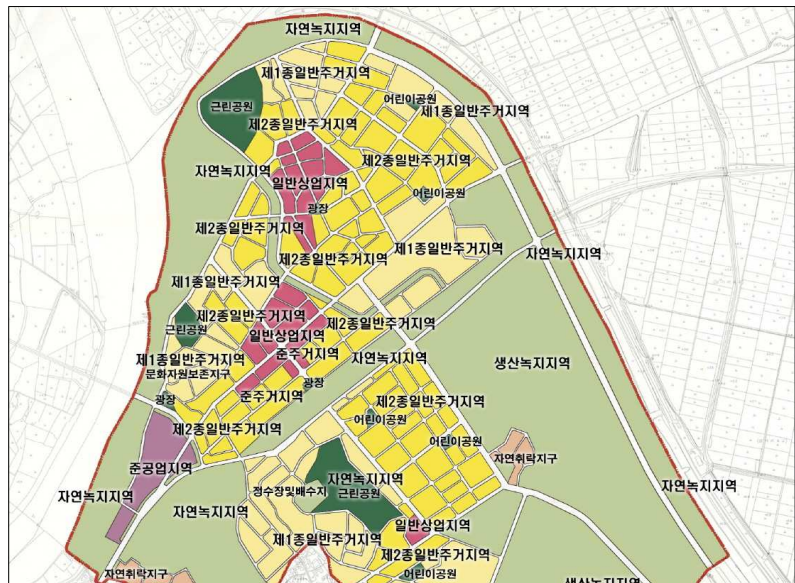
- ①지역관리 프로그램, ②지역활성화 프로그램, ③고용창출 및 교육프로그램, ④전문가 자문 프로그램 등이 있음
-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, 이런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, 공공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반을 형성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
- 이러한 것은 해외지역의 사례들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며, 다만 공공에서 초기에 사업추진을 주도할지라도 주민들을 참여시켜 자생적으로 발전, 관리/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
- 하드웨어적 설계요소 기반이 갖추기 전에 시작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,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 중, 후에 반드시 추진할 필요가 있음
- »주민들이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협력이 필요
- 시에서 정비해 준 건축물 입면에 대한 보존
- 활성화에 따라 토지/건물주의 임대료 상승은 기존 세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, 공동체 해체, 용도변경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음 → 국내에 사례(인사동, 북촌, 전주 한옥마을 등)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주민협약 등을 통해 완충적 방지를 할 필요가 있음

3. 제도적 기반

- 대상공간은 도시계획적으로 일반상업지역, 제2종일반주거지역,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음
- 대상지역을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갖추어져 있지 못함
- 근대 역사문화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비된 건축물 주변의 환경(건축물, 보도, 공공시설물 등)이 조화를 이루어

야 합

- 1차 사업 완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의 변화를 근대공간으로 조화롭게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임
- 건축물, 공공시설물, 공공공간의 조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요구되고 있음



[그림 5] 강경 도시계획 총괄도

4. 금융·재정지원 기반

- 근대 역사공간의 조성은 물리적인 건축환경의 조성뿐 아니라 근대적, 역사적인 성격에 적합한 건축용도의 유도를 통해, 이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임
- 제도적 차원에서의 기반이 되어 있지 않아 금융·재정지원 기반이 부재한 상태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할 시점임
- 현행법상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·재정지원을 제도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도입 검토가 필요

IV. 사업추진방향 검토 및 제언

1. 전문가를 활용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

- 논산시가 주체되어 공간(공공시설, 보행환경, 근대건축물 보존/정비, 접근성 개선 등)을 조성하였지만, 결과적으로 전문가의 자문 또는 활용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

»①상설위원회를 두어 분과별로 자문을 구하는 방법, ②MP를 위촉하여 추진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

1) 공공시설/공간 확보

- 근대공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간의 질(심미성, 매력성, 심리적 안정성:안전, 건강성:깨끗, 쾌적)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

»현재 ①새로 조성된 보도와 기존 건물 전면 사이에 이질적인 공간 처리, ②조화롭지 못한 설비(전기 설비, 전신주 등)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

- 또한 부지를 확보하여 보행자/방문객들이 즐기고, 쉴 수 있는 공간/시설물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

»예를 들면, 시가 매입한 근대건축물 전면공간은 공공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친근감 있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

[그림 6] 건물과 조화된 가로시설물 - 시라카와(좌), 인사동(우)



2) 보행환경 정비

◦ 시공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, ①보도노면의 평활도(불규칙성) 정비, ②거친 블록시공 재시공 등이 요구되고 있음

»또한, 일부재료가 교체 가능하다면 화강석 또는 박석으로 공간의 질의 높일 필요가 있음

◦ 대상거리에 대한 인식성을 높이기 위해 진입부에 정비가
요망됨

»현재는 진입부 영역성이 미흡하여 대상거리를 인지하기
힘듦

»진입부 노면(상징 포장 도입), 가로시설물, 색채 등의 정비가
요망됨

[그림 7]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가로환경 및 편의시설 - 인사동



[그림 8] 가로환경과 조화된 시설물



3) 역사자원의 보존 - 근대건축물 정비/보존

- 각각의 건축물이 어느 곳까지를 근대식으로 복원하고, 현대화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
 - »보여줄 공간과 보여주지 않을 공간, 전시공간과 활용공간 등에 대한 범위 설정이 요구됨
 - »건축물의 옛 재료를 그대로 노출 또는 전시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- ①전기설비, ②인테리어 디테일(천정면 전등, 손잡이 등) 등은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재시공 또는 정비가 요구됨
 - »시설물에 대한 색상 정비, 인위적 시설물을 차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

[그림 9] 건물과 조화된 설치물 - 시라카와



4) 접근성 개선

- ①사업 대상지 내의 공간 간의 접근과 ②사업대상지와 강 경읍 내의 자원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
 - »예를 들면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시설,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보, 매력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표지점 및 중간지점에 매력요소 도입 등
- ③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의 증편이 좋지만, 사업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음을 고려할 때 사업대상거

리에 대한 안내시설을 갖추어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함

2. 근대건축물 활용 주체에 대한 선정

- 현재, 논산시에서 000방송사에 일부 구간의 근대 건축물의 활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(강경 근대 역사문화촌 조성) 하였지만,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아직까지는 없음
- 또한, 일부 구간 외에 건물(8동의 건축물)의 활용과 활용 주체를 어느 곳으로 할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음
- 현재의 접근 방법은 ①강경근대역사관+8동, ②강경 근대 역사문화촌(000방송사), ③공공공간(거리:논산시, 강경읍) 등으로 활용 주체가 분리되어 있음

»관리운영방식으로 ①3 주체로 분리하여 갈 것인지, ②3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별도의 주체(최소한의 협의체)를 만들어서 관리할 것인지, ③별도기관을 유치하여 관리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

- 거리공간의 활성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② 또는 ③의 방식을 취해야 하며, ②의 방식의 경우 논산시의 역할(초기)이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되며, ③의 방식의 경우는 별도기관의 활용주체로서 기관의 활용능력이 중요하고, 논산시는 지원/협조기관의 역할을 하게 됨

- 협의체의 유형은 ①제3섹터형(TMO, 사회적 기업 등), ②NPO(NGO), ④주민협의체 등이 있으며, 논산시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유형은 3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①제3섹터형(TMO, 사회적 기업 등), ②NPO(NGO)임

»④주민협의체는 대상거리에 중심을 둔 협의체는 현재 없으며, 강경에 역사문화연구회가 있지만 이는 강경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

- 별도기관의 유형은 ①제3섹터형(TMO, 사회적 기업 등), ②NPO(NGO), ③민간기업 등이 있는데, 국내외에서 일반

적인 활용 주체는 ①제3섹터형(TMO, 사회적 기업 등), ② NPO(NGO)임

»논산시의 입장에서는 ③민간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나, 현재 강경근대 역사관[구)한일은행 건물]의 활용 주체가 있고 000방송사의 참여가 전제 된다면, 그 외의 공간활용에 대해 민간기업이 비수익성 사업에 대한 참여 여부가 불분명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

◦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활용주체의 성격은 ①제3섹터형(TMO, 사회적 기업 등), ②NPO(NGO)가 되며, 최소한 ‘3개의 주체(강경역사박물관, 000방송사, 논산시 등)’ + ‘주민대표’가 참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»강경역사박물관에서는 문화예술경영전문가를 위촉하여 전 시, 활용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
3. 주민과 함께 하는 관리 프로그램 추진

- 소프트적 관리 프로그램의 추진은 강경역사문화공간의 활성화와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함
- 논산시에서는 이에 대한 사업비를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
- 현재 강경에 역사문화연구회가 활발히 활동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

구분		단계			비고
		초기	중기	장기	
소프트웨어	지역관리 프로그램		○	○	· 문화원, 강경읍, (사)강경역사문화연구원 등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 · 논산시 참여 지원
	지역활성화 프로그램		○	○	
	고용창출 및 교육프로그램		○	○	
	전문가 자문 프로그램	○	○	○	· 논산시가 주체가 되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반 구축 시에 활용

4. 문화지구, 미관지구 지정을 통한 제도 및 금융·재정지원 기반 구축

-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자원화와 관리를 위해서는 대상 공간의 정비 및 보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함
-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역문화진흥법(제2조)에 의한 문화지구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 관리계획에 의한 미관지구 중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이 있음
-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제도적 기반 구축과 함께 금융·재정지원 기반을 위해서는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
- 문화지구 지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미관지구와 차이점이고, 더욱 중요한 것은 브랜드 홍보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

[그림 10] 문화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 절차

